

# 월/요/광/장

김택민



여기 하나의 전설이 있다. 20년도 더 된 오래된 전설이다. 늙은 무법자는 정력이 절로해서 70세가 넘었지만 왕성하게 일을 벌였다. 그는 건물의 설계에서 시공까지 스스로 해야 직성이 풀렸다. 그는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가우디를 존경하는 듯했다. 입만 열면 유럽의 성당들을 몇 백 년에 걸쳐 건축되었다고 예술사를 강의했다. 위대한 건축물일수록 오래오래 미완성인 채로 거꾸집을 둘러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론인 듯했다. 예술에 대한 그의 이 같은 신념은 드넓은 무당산 자락의 아늑한 서석 밭을 기묘한 예술품들로 채움으로써 시현되어 갔다. 그는 아름답고 아늑한 그곳을 살벌한 폐허로 만들 줄 안 천재적인 예술가였다.

미완성의 예술품들을 위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공사는 시도 때도 없이 벌어졌다. 공사는 개강 무렵이면 유난히 활발해졌다. 200여 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형 강의실에서는 주변 공사장에서 울리는 굉음과 어우러져 매우 역동적인(?) 수업이 진행되곤 했다. 청운의 꿈을 안고 빛을 내서 치를 등복급은 온통 먼지투성이가 된 흙물스런 구조물의 철근과 콘크리트로 녹아들어가는 대신 그의 기업들은 늘어만

갔다. 돈 되는 기업도 꽤 있다고 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은 산자락을 까뚝하고 엄청난 양의 철근을 엮고 콘크리트를 부어 세워지고 있던 장엄한 백악의 성채였다. 그 성채의 콘크리트 지붕 두께는 1미터도 넘었으나 비만 오면 강의 실마디 북도마다 물바다가 되었다. 교수

##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연구실은 햇볕도 들지 않는 8층 침담 다락방에 있었다. 밤에는 쥐들이 드나들었다. 거꾸집으로 둘러싸인 강의실의 유리창은 대부분 어긋나 있거나 깨져 있었다. 3월과 11월은 추워서 강의가 되질 않았다. 5월과 9월의 오후는 쏟아져 들어오는 햇볕과 더위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 학기 16주 강의는 저절로 10주 안팎으로 단축되었다. 참으로 태평한(?) 시대의 전설이었다.

무법자는 자기가 위대한 인물임을 애써 표현하려 했다. 그는 스스로를 태양에 비유했다. 호를 자애로운 태양이라는 뜻의 '자양'이라 짓고, 뒷산을 자양봉이라 명명

한 뒤, 그 위에 핵융합발전소를 짓겠다고 호언하기도 했다.

매일 아침 모든 교직원들 운동장에 집합시켜 놓고 그의 위대한 사상을 끝없이 설교하다가 땀박질을 시켰다. 뜨거운 여름이면 온정을 베풀어 바라코 건물 안에 모아 놓고 몇 시간씩 사상 교육을 시켰다. 이미 그의 종이 되어 버린 불쌍한 영혼들은 한증막 안에서 고맙게 몇 시간씩 사어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철없는(?) 어린 양들은 무법자의 위대한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날이 갈수록 시위는 격화되어 갔다. 1987년 봄 학기가 되자 무법자는 모든 교수들에게

밤에 그의 집과 학교를 지키라고 명했다. 교수들은 할 일 없이 밤늦게까지 서성일 수밖에 없었다. 강의와 연구는 이미 그들의 주 임무가 아니었다.

경찰이 기습하여 백악의 성채가 잠엄한 불꽃으로 타오른 뒤에야 무법자는 쫓겨났다. 그 때서야 비로소 무법자의 회사에서 벗어난 교수와 학생들은 폐허의 잔해를 걷어내고 강의실과 연구실을 정돈하여 교육의 재건에 착수했다. 격변하는 시대에 허송한 40여 성상 가까운 시절을 만회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는가? 그래도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일치단결 합심해서 경향의 청송을 들을 만큼 괄목상대

의 발전을 이루었다.

호사에는 마가 끼는 법인가? 원래 시뮬거리다 못되었던 사안을 이른바 분쟁위원회라는 곳에 올려놓고 도필리(刀筆吏·법관의 별칭)들이 칼끝을 놓아 무법자의 망령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 망령의 여일(餘孽·멸망한 사람의 자손)들이 겨우 제자리를 잡은 학문의 전당을 어슬렁거리며 짓밟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서론도 안 되는 알량한 법리를 내세워 1년 3개월을 끌더니, 마침내 다시 그들에게 송두리째 넘겨주려 하고 있다.

무법자에게 짓밟힌 세월의 아픔은 고스란히 지역의 손실이 되었다. 무법자는 학교 황폐화와 지역의 낙후를 유산으로 남겼다. 옛날 군사정권은 이를 오히려 방조하는 듯했다. 뇌물을 받고 묵인한다는 말도 나돌았다. 지금 위정자들도 그와 다른 것 같지 않다. 애당초 그들에게 이 지역의 교육 따위는 관심거리도 아니었다. 그들의 시비 기준은 후원자가 누구인가에 따를 뿐이다.

지금 3만 가까운 이 지역 인제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문의 전당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이 대학의 성패는 지역의 성쇠와 직결되는 문제다. 단결해서 이를 지켜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옛 도청별관 철거 소모적 논쟁 접을 때 됐다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5·18 단체에게 법원이 철거를 명령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광주지법이 지난 10일 추진단이 5·18 단체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및 하로 문제를 풀지 못함으로써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우리는 별관 철거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이전 접을 때가 됐다는 판단이다. 거의 1년이 다되도록 '철거'와 '보존' 논쟁만 되풀이하는 사이 문화전당 건립 공사는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해도 오는 2012년 완공 목표가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

이다. 금전적 손실도 막대하다.

별관철거를 놓고 심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 내 갈등도 큰 문제다. 최대 경제위기 속에 지역 여론마저 분열된다면 광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현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타격타격하는 우리의 모습을 타지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도 걱정이다. 한번 흐려진 지역 이미지가 회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지는 곧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이며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두렵기조차 하다.

철거와 보존 양쪽 주장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평행과 합의는 별개"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별관 철거 작업에 들어갈 계획인 추진단과 물리적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히려 대화로 문제를 풀지 못함으로써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우리는 별관 철거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이전 접을 때가 됐다는 판단이다. 거의 1년이 다되도록 '철거'와 '보존' 논쟁만 되풀이하는 사이 문화전당 건립 공사는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해도 오는 2012년 완공 목표가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법조 칼럼

진용태



변호사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고민과 과정을 거치고서야 큰 결심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엿어본다. 필자는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어두운 수심의 그림자를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 질 때가 많다. 특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을 상담할 때는 더욱 마음이 무겁다. 다만 그들이 필자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상담에 임한다.

간혹 상담 끝에 해결 방법이 보이지도 않고, 수입 후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밑에서 단서를 얻어 승소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필자는

다. 예컨대 차용증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다 계약서 등 문서 작성 이전 단계부터 변호사를 만나 상의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예상해 계약서 등의 문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분쟁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앞으로 진행될 사건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듣고 적절한 대처해 분쟁의 확대를 막는 한편,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칫 시기를 놓쳐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가압류 등 보존처분을 하지 않아 어렵게 얻어

## 변호사를 만나세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사소한 법률 문제라 할지라도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최근에는 변호사 수가 많이 늘어 쉽게 만날 수 있고, 변호사 수입료도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아 예전보다 쉽게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의 한 달 수입을 상회하는 수입료와 변호사에 대한 선입견 및 부정적 인식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 것을 꺼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의사가 건강 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발생한 질병을 치료해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듯이, 변호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한 법률적 분쟁을 해결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주거나, 최소한의 손실로 분쟁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주 간단한 법률문제로도 생 각되더라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

다. 예컨대 차용증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다 계약서 등 문서 작성 이전 단계부터 변호사를 만나 상의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예상해 계약서 등의 문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분쟁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앞으로 진행될 사건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듣고 적절한 대처해 분쟁의 확대를 막는 한편,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칫 시기를 놓쳐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가압류 등 보존처분을 하지 않아 어렵게 얻어

# 기고

이명자



지난 해, 우리 정치사에 매우 뜻 깊은 일이 있었다. 사회운동 현장에서 말쑥이 물러나 있던 주부들이 '촛불집회'에서 정치활동의 주체로 등장한 것이다. 인위적 절반은 여성, 그럼에도 제 목소리를 내는 데는 채 100여 년도 되지 않았다. 그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던 1991년 지방의원 선거에서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여성 당선자 비율이 2006년에 15%로 증가한 것도 여성의 지위가 그만큼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적인 예로 유엔개발계획(UNDP)이 여성의 정치참여나 고위직 진출 정

자로 남아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여성의 작은 목소리들을 대변해 줄 여성정치인들이 배출돼야 하고 이들을 정치세력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조직과 네트워크 구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필자가 광주지역 광역·기초여성의원협의회를 결성, 여성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후보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줘야 한다며 정치권을 향해 동료 여성 의원들과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같은 뜻에서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 참여는 재정과 조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와 같은 결핍을 메워줄 가장 좋은

## 여성의 힘으로 여성정치가 만드자

도를 평가해서 발표한 2008 여성권력 지수(GEM)에서 우리나라는 68위로 최하위 수준임이 밝혀졌다. 광주시의 경우도 공무원 5급 이상 관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앙행정기관(11%)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아 9%에 머물고 있다.

이렇듯 아직은 불평등한 환경에서 사회의 기초인 '함께'라는 가족의 이상이 '따로'로 변해가고 있다. 혼자 혹은 풀이사는 가족이 3인 가족 21%, 4인 가족 27%와 비등할 정도로 증가했고 여성의 학력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가족 내의 역할이 커진 반면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한 자녀 수준을 겨우 넘긴 세계 최저 출산율, 다문화 가정의 증가, 고령화 등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더욱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수입 파동에서 깨달았듯이 먹을거리나 교육 문제에서 여성은 공권력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더 이상 다수의 침묵

방법은 여성들 스스로가 풀뿌리 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이 운동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에밀리리스트'(EMILY's List) 운동이다. '초기 자금은 누룩과 같은 것이다'(Early Money Is Like Yeast)라는 뜻을 담고 있는 에밀리리스트는 1985년 미국에서 시작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하원의장에 추대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을 후원해 우편과위의 산실이 됐다.

이처럼 여성유권자들이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여성 후보들을 발굴하고 심시일반 모금한 자금으로 '대안 정치세력으로서의 깨어난 여성정치인'들을 직접 배출해야 한다. 이제 남녀라는 생물학적 분류를 넘어서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통해 건강가정을 이루고, 이러한 사회적 토대에서 국가의 변명과 미래 자손들의 안녕을 보장하도록 여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 無等鼓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上海)에 둥지 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8·15 광복 때까지 즐기게 항일 투쟁을 전개했다. 일제의 반격과 중일전쟁으로 항저우(杭州)·창사(長沙)·충칭(重慶) 등 지역마다에서 수차례 거처를 옮겨가며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면서 독립운동의 중추로서 역할을 다한 민족의 대표 기구였다.

비단 항일투쟁뿐만 아니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유해 봉환식, 민주공화국의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사에 신기원을 열었다"면서 "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2차 대전 종결 때까지 27년간 전개된 임정의 독립운동은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멸의 업적"이라고 역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정 요인들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데는 광복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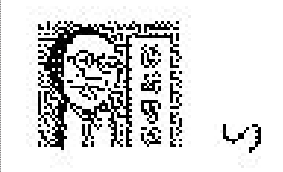
4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 한·중 관계가 주요 원인이었지만 임정이 우리 역사에 제대로 자리 잡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난해 정부가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추진하면서 수차례 거처를 옮겨가며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면서 독립운동의 중추로서 역할을 다한 민족의 대표 기구였다.

비단 항일투쟁뿐만 아니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유해 봉환식, 민주공화국의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사에 신기원을 열었다"면서 "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2차 대전 종결 때까지 27년간 전개된 임정의 독립운동은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멸의 업적"이라고 역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정 요인들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데는 광복 후

## 대한민국 임시정부



## 은행 사이트 보안 '액티브X' 거래때만 작동됐으면

은행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액티브X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고 화가 난다. 액티브X라는 것은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 등을 웹과 연결시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은행 사이트 특성상 시스템 보안을 철저히 하고 보안용 소프트웨어를 깔아야만 접속이 되는 건 이해를 한다. 그런데 한번 들 어가려면 액티브X라는 것을 도대체 몇 개씩 깔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은행 금융

기관마다 다 틀리고 은행업무 한번 보려면 몇 번씩 재부팅을 요구한다.

애초에 은행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사실 은행 거래를 할 때만 작동하면 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작동한다. 은행 거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 보안을 강화하고 싶은 거라면, 그냥 프로그램이 수동배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김원준·광주시 광산구 심거동

## 고비용 저투표를 '교육감 직선제' 효율적 방안 찾아야

이번에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이 너무나 저조했다. 선거지 투표장 직원들은 할 일이 없어서 멍하니 창밖만 쳐다보아 할 정도로 투표 참여가 너무나 저조했다. 거기다가 투표에 들어간 돈은 거의 천문학적이란 말이야. 이 선거에서는 개인당 36억 원의 선거비용뿐만 아니라 관리비용만 468억 원이 들어갔다.

교육감 직선제는 제작된 부산에서 처음 실시돼 금년에도 경북과 충북 3곳에서 치러

진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투표율이다. 말이 민의 수렴이지 기껏해야 10%~20%대의 투표 참여로 무슨 민의가 수렴될 것인가 의문이 든다. 참고로 이번 경기도 교육감 보궐 선거에선 역대 최저인 12.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하니 할말이 없는 일이다.

국민의 혈세가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도록 뇌물 개 아니라 교육자치의 기본 이념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남민배·광주시 광산구 고흥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72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재부 2200-634	문화홍보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사회 1부 2200-612	여론제작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F A X 222-4267〉	체육팀 2200-663	다자간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조사부 2200-57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